



미 증시, 예상치 하회한 CPI에 급등

미국 증시 리뷰

14일(화) 미국 증시는 예상치 하회한 10월 CPI 결과, 연준위원들의 긍정적인 발언 이후 시장금리 및 달러 하락 등 위험선호심리 재개되며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 마감. (다우 +1.43%, S&P500 +1.91%, 나스닥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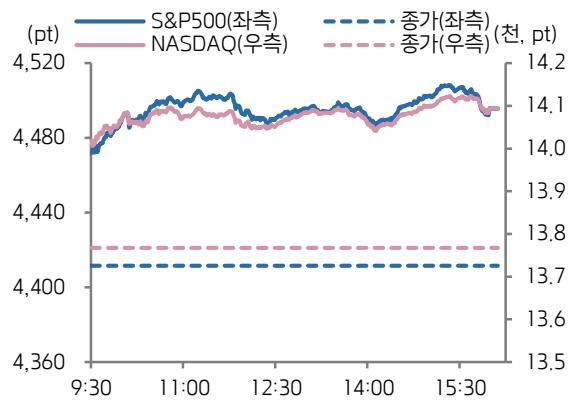
10월 CPI YoY 3.2%(예상 3.3%, 전월 3.7%), MoM 0.0%(예상 0.1%, 전월 0.4%)로 4개월만에 재차 하락, 10월 근원 CPI YoY 4.0%(예상 4.1%, 전월 4.1%), MoM 0.2%(예상 0.3%, 전월 0.3%) 기록하며 예상치 하회. MOM 휘발유 전월 2.1% → -5.0%, 연료유 8.5% → -0.8% 등 에너지 부문 1.5% → -2.5%로 감소 전환. 신차 0.3% → -0.1%, 중고차 -2.5% → -0.8%로 감소세 유지. 주거비 0.6% → 0.3% 포함 서비스 부문 0.6% → 0.3% 상승폭 축소

오스tan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10월 CPI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연준의 목표치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 "상품은 디플레이션이 있고, 주택 부문도 둔화되면서 각 카테고리에서 분명한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인플레이션 추가 진전의 열쇠는 주택시장이라고 언급. GDP 데이터 5%대에 실업률이 3.9%임에도 공급망 충격이 개선되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블랙스완 이벤트로는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유가 흐름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같은 신용 충격이나 금융위기,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을 지적.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2년 넘게 목표치인 2%를 웃돌았고, 지금도 2%를 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확실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

전업종 상승한 가운데 부동산(+5.3%), 유틸리티(+3.9%), 경기소비재(+3.3%) 상승 상위, 에너지(+0.5%), 헬스케어(+0.7%), 필수소비재(+0.9%) 상승 하위. 애플(1.43%), 알파벳(1.16%), 아마존(2.25%), 매타(2.16%) 등 금리에 민감한 빅테크 강세. 테슬라(6.12%)는 전일 인도가 테슬라 전기차 관세 인하 고려, 미국 연기금인 캘퍼스가 3분기 테슬라 지분을 20% 이상 늘렸다는 보도에 이틀째 강세. 또한 글로벌 10월 전기차 판매량이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yoY 34% 증가를 기록했다는 점 역시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 흄디포(5.4%) 3분기 실적은 전년대비 부진했으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주가는 강세. 흄디포의 고객은 대부분 주택을 소유한 소비자로 몇 년간 소득이 증가해왔다며 주택 개량을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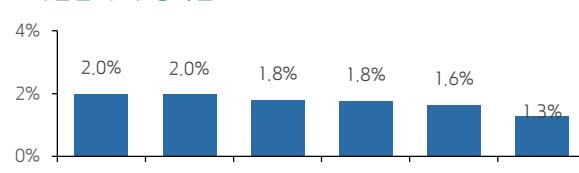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33.25	+1.23%	USD/KRW	1,328.95	+0.3%
코스피 200	326.57	+1.01%	달러 지수	104.08	-1.47%
코스닥	794.19	+2.55%	EUR/USD	1.09	-0.02%
코스닥 150	1,265.86	+2.87%	USD/CNH	7.25	+0%
S&P500	4,495.70	+1.91%	USD/JPY	150.33	-0.03%
NASDAQ	14,094.38	+2.37%	채권시장		
다우	34,827.70	+1.43%	국고채 3년	3.857	-1.5bp
VIX	14.16	-4.07%	국고채 10년	3.980	-2.7bp
러셀 2000	1,798.32	+5.44%	미국 국채 2년	4.836	-19.9bp
필라. 반도체	3,685.57	+3.62%	미국 국채 10년	4.447	-19.3bp
다우 운송	14,855.64	+3.31%	미국 국채 30년	4.620	-13.5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91.72	+1.41%	WTI	78.21	-0.06%
MSCI 전세계 지수	667.35	+0.16%	브렌트유	82.45	-0.08%
MSCI DM 지수	2,904.64	+0.13%	금	1966.9	+0.86%
MSCI EM 지수	952.27	+0.42%	은	23.15	+3.52%
MSCI 한국 ETF	61.89	+3.69%	구리	367.65	+0.2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3.69%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2.66%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1.5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3.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6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긍정적인 미 CPI 결과로 인한 증시 온기 확산 가능성
2. 바이오, 인터넷, 신재생 등 금리 상승 피해주들의 반등 탄력 개선 여부
3. 공매도 금지라는 수급 이벤트의 국내 증시 영향력 지속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0 월 미국 CPI 는 헤드라인(3.2%YoY vs 컨센 3.3%), 코어(4.0%YoY vs 컨센 4.1%)는 예상보다 증시 친화적인 결과를 제공한 모습. 에너지(9 월 -0.5% → 10 월 -4.5%), 주거비(7.1% → 6.7%) 등 핵심적인 세부 항목 상 결과 값도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한동안 시장은 유가 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상승 불안에 놓여있으며 인플레 고착화 경계감도 쉽게 떨쳐내기 어려웠었지만, 10 월 CPI 를 통해 이 같은 불안과 경계감을 일정부분 덜어낸 것으로 보임. 또 CME Fed Watch 상 12 월 FOMC 에서 금리 동결은 유력시 됐고(확률 99%), 내년도 금리인하 시점도 5 월(확률 50%)로 앞당겨지는 등 연준의 긴축 사이클 종료는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11 월 14 일에 발표된 BofA 의 11 월 글로벌 펀드매니저 서베이 상으로도 연준의 인상 사이클이 이미 종료됐다는 응답비율이 10 월 60%에서 11 월 76%대로 늘어났다는 점도 참고해볼 필요.

결국 10 월 CPI 를 통해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 이는 인플레이션 2% 목표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식의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는 연준으로 하여금 덜 매파적인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명분을 제공해 나갈 전망. 아직 연준이 a) 어떤 이유로 금리인하를 해야 하는지, b) 언제 인하를 해야 하는지를 놓고서는 시장 참여자들간 교통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기는 함. 그럼에도 9 월과 10 월에 연이어 극심한 증시의 조정을 유발했던 고금리, 강달러가 증시를 짓누르는 힘은 이전에 비해 약화될 것으로 판단.

CPI 이벤트는 긍정적으로 소화했으며 3 분기 실적시즌도 사실상 종료된 만큼, 이제 주식시장은 외생 변수에 영향을 받는 국면에 돌입할 전망. 이런 관점에서 주중 남은 기간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미 의회의 예산안 협상 등 정치와 지정학 변수의 증시 영향력이 높아질 것. 외신 보도에 의하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군사 대화 창구의 일부 재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한 만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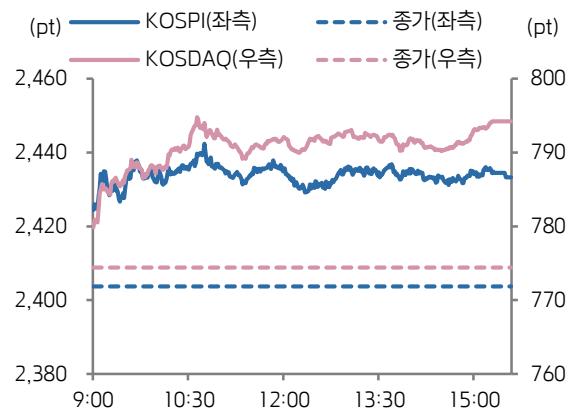
차주 월요일부터 그 결과가 국내 증시에 반영될 예정인 미 예산안 협상의 경우, 12 개 세출 법안을 놓고 여전히 양당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전체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24 년 1 월 19 일까지의 1 단계 예산안과 '24 년 2 월 2 일까지의 2 단계 예산안 등 임시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 요인이나, 17 일까지는 미국발 정치 노이즈가 증시에 차익실현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에는 대비.

전일 국내 증시는 CPI 대기심리에도, 테슬라발 호재에서 기인한 미국 전기차주 급등,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가능성 등이 국내 이차전지주에게 호재성 재료로 작용하면서 반등에 성공(코스피 +1.2%, 코스닥 +2.6%).

금일에도 수급 변동성은 상존하겠지만, 긍정적인 미 CPI 에 따른 금리 및 달러화 급락 등에 힘입어 바이오, 인터넷, 신재생 등 금리 상승 국면에서 주가가 부진했던 업종 위주로 강세 흐름을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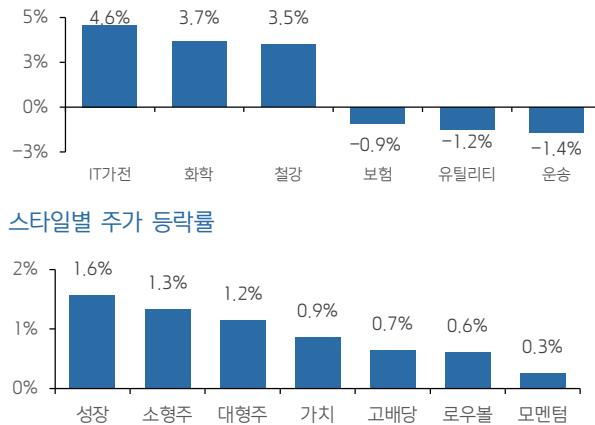
한편, 국내 증시는 공매도 금지가 테마로 형성된 가운데, 최근에는 금지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 중장기적으로 해당 이슈가 외국인 수급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불확실하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 수급 환경은 양호해 보임. 일례로, 최근 1 주일 동안(11 월 2 일~8 일) 아시아향 글로벌 펀드 플로우는 40 억 달러 유입됐으며, 이 중 한국이 14 억달러로 대만(19 억달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유입(중국은 9.3 억달러로 아시아 국가 중 3 위). 이를 감안 시 당분간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대형주 중심의 비중 확대 전략이 적절.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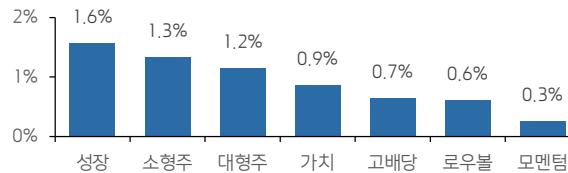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